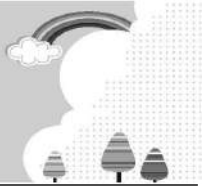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미래를 꿈꾸며

박○혜 / 설○중학교

세계의 대통령이신 반기문 총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서 살고 있는 올해 15살이 된 박○혜 라고 합니다. 총장님을 알기 전에 저는 꿈이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저의 미래를 생각 해본적도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월이 흐르면 뭐든 되어있겠지 라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뉴스를 통해 총장님을 뵈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연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멋져보였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세계 각국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없이 서계신 모습은 한줄기의 빛처럼 느껴졌어요.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제 자신이 답답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영어에 관심이 생기고 막연히 총장님과 같은 훌륭한 분이 되고 싶었어요. 그 후로 총장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신문이나 인터넷, 책을 통해 관심을 갖고 더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영어 웅변대회를 통해 미국을 방문했고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훌륭한 정치인이나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며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총장님께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꿈을 가졌듯이 저도 총장님을 직접 만나 뵈지는 못해도 총장님께서 하신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소홀해지는 마음을 채근해서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또 남달랐던 모습은요, 얼마 전 반기문 총장님께서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에 근거한 진정한 화해와 협력 정신을 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끔한 말로 일침을 놓기도 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도 해주시는 모습에서 세계의 대통령이심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신문에서 보았던 총장님은 작년에 투표를 실행하여 예비투표에서 찬성 14표, 반대 1표가 나왔고 1차 투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2표를 받으며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아 강대국의 압박에 벗어나 중립적 외교정책을 하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어 잘 나서질 못하는데 자신감을 키우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배경지식을 늘려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이끌어도 보려고 합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다보면 조금씩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일입니다. 외국어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국어와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는 외교를 진학해 더 폭넓게 배우고 싶고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수준을 높여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때는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과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요. 물론 제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라는 명언을 세기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키우겠습니다.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넌 응원해

이○미

유치원에서 친구가 줄넘기 하는 모습을 보고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줄넘기만 가지고 들락날락 거리던 아이는 어느새 줄넘기 달인이 되었고, 공룡을 좋아하는 동생에게 질세라 함께 치열하게 공룡 다큐멘터리와 공룡책을 보던 아이는 이제 동생을 뛰어넘는 공룡박사가 되었지. 친구들이 그려준 예쁜 그림편지를 들고 집에 돌아오면 가방 내려놓을 새도 없이 연습장을 몇 장씩 써가며 그림을 따라 그렸더랬지. 친구의 편지에 대한 반가움을 느낄 여유는 없었지만 결국은 마음에 찰 만큼의 그림을 그려 냈을 때 그 아이의 만족스러운 얼굴 표정은 잊을 수가 없구나. 이게 바로 너야.

이런 것들이 우리 ○이에게 얼마나 큰 성취감을 주고 있는지 엄마는 다 아는데도 그런 모습이 싫었던 적이 있었어. 엄마가 살아보니깐 세상은 너무나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고, 엄마는 그 경쟁에 떠밀려 내가 누구인지, 난 뭘 좋아하는 아이인지, 어떨 때에 난 행복한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았거든. 덕분에 어린이라 불릴만한 시절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 같아. 그냥 아기에서 어른이 되어버린 느낌이랄까? 이렇게 성숙해질 새도 없이 어른이 되어버린 엄마의 모습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단다. 엄마는 ○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단다. 세상에는 노래를 잘하는 은행원도 있는 법이고, 요리를 잘 하는 피아니스트도 있으며, 글을 잘 쓰는 운동선수도 있는 법이니깐 말이야.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건 그건 세상에 하나뿐인 ○이란단다. 이제는 항상 ○이를 응원할 수 있는 엄마가 되었단다. 엄마가 너의 조력자로서 부탁하고 싶은 건 단 두 가지란다.

하나, 세상을 궁금해 하는 그 마음을 언제까지나 간직하길 바란다.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처럼 항상 궁금해 하고, 더 알기 위해 노력하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가 좋아하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을 놓아버리지 말거라. 모든 창의성은 전문성에서 시작 되는 거란다. 자기가 많이 알고 애정이 있는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란다.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면 즐거운 마음으로 파고들여라. ○이의 장점이 십분 발휘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거기에 깊이를 더하고 싶다면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독서를 많이 한다고 모두 생각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깊고 진중한 사람은 반드시 독서를 많이 한단다. 공대를 가서 연구원이 되어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도, 혹은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인문학에서 비롯된 지성은 널 어느 누구와도 다른 너만의 색깔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준다면 너의 인생에서 하는 모든 소중한 경험들이 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후회 없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아니 후회하더라도 그로인해 흔들리는 자신의 불안함까지도 잘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 믿는다. 그리고 언제나 널 응원한다. 너의 영원한 친구이고 싶구나.